

사회 기품있게 만드는 '동감의 원리' 강조



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지음

애덤 스미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고.

일반적으로 애덤스미스 하면 '국부론'을 쓴 정치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애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자인 동시에 도덕 철학자이다. 실제 스미스의 '국부론'도 '도덕감정론'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도덕감정론'은 스미스라는 위대한 학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이다.

한길사의 한길그레이트북스 시리즈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번역 출간됐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성균관대에 재직 중인 김광수 교수가 번역을 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국부론'보다 아홉 달 앞 책에 전작했다고 한다. 36세에 출간한 것에서 보듯 삶의 전반기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애를 썼다. 반면 '국부론'은 53세에 나왔는데, 이는 '국부론'이 '도덕감정론'의 연장에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도덕감정론'은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물질을 꼽

는다. 물론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좋은 삶을 위한 경제적 풍요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문명의 진보를 견인해왔는지 밝힌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인간은 혼자서 경제활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은 사회공동체에서 타인과 협력해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 구성원들 간의 공감, 도덕, 협력 같은 요소도 요구된다. 이 원리는 법과 정치라는 영역으로 귀결되는데 결국 '경제'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조화롭게 상호작용되느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스미스는 세계를 두 가지 질서로 나눈다. 하나는 감각적인 경험의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추론의 심층적 세계다. 이 가운데 심층적 세계는 사물 특유의 본질 또는 실제의 세계로, 경험적 세계를 움직인다.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해 스미스는 자신의 도덕철학체계를 세운다. 이 체계가 '윤리학', '법학', '경제학'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사회의 세계', '법과 통치의 세계', '경제의 세계'에 대응한다. 이 가운데 '도덕감정론'은 윤리학에 해당하는 저서로 '사회의 세계'뿐 아니라 '법과 통치의 세계', '경제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스미스는 '동감(sympathy)의 원리'를 강조한다. 타인에게 동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 신중, 적절한 박애, 지혜 등 사회를 기품있게 하는 모든 덕목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감은 '보편적인 도덕감정'으로 타인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한길사·3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빅뱅·끈 이론... 저장들이 들려주는 우주의 역사

우주의 통찰

앨런 구스와 지음



"우주는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으며 우주의 구성 법칙은 무엇인가?" "우주론의 정점이 가져올 변화와 혁신은 무엇인가?"

바야흐로 우주론의 황금시대다. 작금의 과학의 시대,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문적으로 보면 우주의 기원과 구조, 생성과 변화를 다루는 우주론은 1980년대부터 30년간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고강도 위성망원경 관측이나 대형강입자충돌기 실험처럼 우주 가설을 검증할 강력한 기기와 데이터가 등장했다.

지난 2012년 7월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가 힉스입자를 발견했다. 힉스입자는 빅뱅 당시 질량이 없던 소립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존재로 추측됐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입자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 및 입자물리학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급레이저간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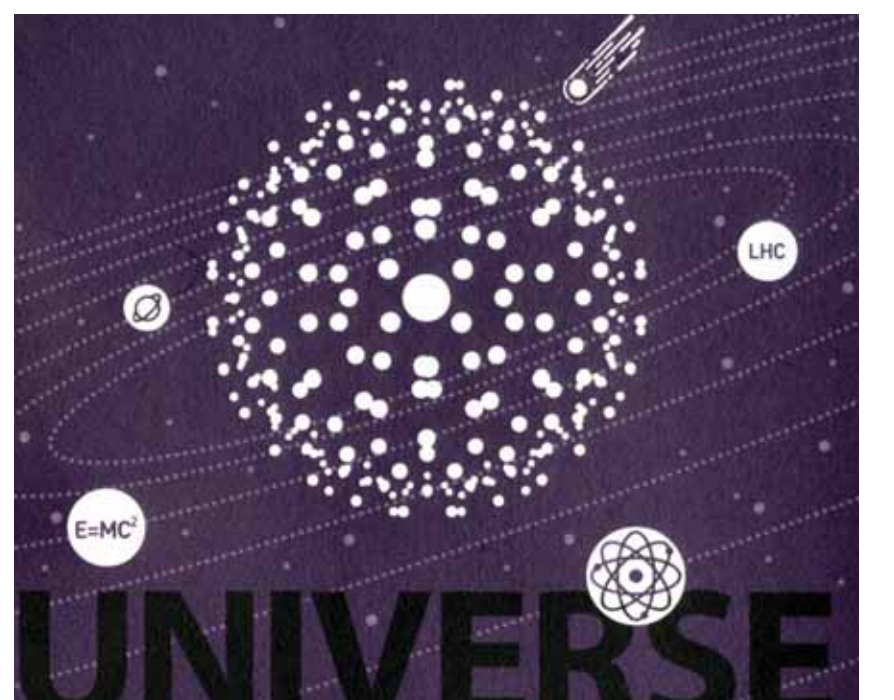
중력파관측소(LIGO) 연구단이 중력파 직접 검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중력파는 폭발이나 블랙홀 충돌 시 중력 변화로 발생하는 흔들림을 말한다. 시공간을 일그러지게 만들며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에 도달한다.

흥미로운 점은 중력파는 빛과 달리 모든 물질을 통과하면서도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출될 당시의 정보를 온전히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전파망원경 등 기존의 관측장비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는 과학검증 도구로 용이하다. 사실 중력파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예측되었다. 우주의 기원과 블랙홀을 설명할 단서로 여겨졌는데, 미해결 과제로 있다가 1세기 만에 봉인이 풀린 것이다.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우주의 통찰'은 급팽창이론의 아버지 앨런 구스부터 끈이론(모든 입자가 끈이나 고리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의 제창자 레너드 서스킨드까지 세계 석학들의 우주에 관한 이론과 학설을 다룬다.

책은 최고 석학들의 지식 프로젝트 모임 '엡시'시리즈 네 번째 결과물이다. '엡시'는 1996년 엡시재단(창설자 존브룩만)에서 꾸린 지식 공유 모임으로 제레드 다이아몬드, 스티븐 핑커, 대니얼 카너먼 등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자, 예술가 등이 학문적 성과를 나눈다.

우주론은 물질의 최소 구성단위 소립자의 역사를 다루는 입자물리학에서부터 별과 항성계의 물리적 상태를 연구하는 천체물리학, 천문학, 실험물리학, 과학철학 등 다양하다. 상대성이론, 고리



현대는 우주론의 황금시대라고 불릴 만큼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중력론 등 현대 이론물리학의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시간, 공간, 물질 등 모든 것의 '기원' 문제가 내재돼 있어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류학, 종교학 등 인문사회와도 통섭이 가능하다. '우주의 통찰'은 통섭의 스프라크가 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영국왕실 천문학자 마틴 리스는 '우리가 다중우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한 가상우주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여러 우주에는 초지능을 가진 집단이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슈퍼컴퓨터가 복잡계와 자연을 무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우리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이다.

MIT의 양자역학 공학자인 세스 로이드는 우주가 고유의 계산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진 컴퓨터이며 최초의 정보처리 혁명은 빅뱅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주는 코크, 전자, 양성자 등 소립자 수준에서 비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소립자가 부딪혀 비트 플립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우주가 컴퓨터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와이즈베리·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전쟁의 시대 아버지 삶 형상화



비단길

김원일 지음

분단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김원일이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소설집을 발간했다.

작가는 1966년 '1961-알제리'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으며 이 책은 작가의 여덟 번째 소설집이다. 소설집은 단편 '아들의 혼', '미망', 장편 '마당 깊은 집', '불의 제전', '아들의 아버지' 등 그의 대표적인 작품과 맥을 함께하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김원일의 소설은 역사적 사실, 그 뼈대 주위를 채우는 이야기들로 서사가 이루어

져 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작가는 여전히 그 시간대에 머물며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증언한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6·25전쟁이 있었고 남과 북이 갈렸다'라는 전제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 작가는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이번에 수록된 소설 '아버지의 나라'는 작가가 평생 주제였던 '아버지'를 좀더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소설 '비단길'은 '자리로 돌아온 아버지'로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이전의 '비어 있는 아버지의 자리'와 배치되는 효과를 낳는다. 김원일의 소설은 이미 지나간 역사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독자들을 6·25의 비극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발휘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도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다



쉽고 빠르게 읽는 노자

박삼수 역주

노자 사상의 핵심은 도(道)다. 도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으로,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노자의 사상과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국내 동양 고전의 학문적 신뢰도는 완벽하게 믿을 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학자들마다 나름의 논리로 '노자'를 역해하며 너나 없이 '기시인비(己是人非·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름)'을 외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만큼 왜곡과 오류가 심하다는 뜻이다.

울산대 박삼수 교수가 '쉽고 빠르게 읽는 노자'를 펴낸 이유다. 제목이 말해 주듯 역자는 고전 번역서의 난독성 문제를 염두하고 일반인들이 인문학의 핵심인 고전을 가까이 하도록 초점을 뒀다. '노자'읽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올바른 번역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혼란'을 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며 "쉽고 빠르게 읽기"를 표방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밝힌다.

〈지혜의 바다·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청소년들에 들려주는 법 교양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지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법 교양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냈다. 부

정청탁 및 공판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며 정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그는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

다. 저자는 그가 생각하는 열린 법을 말하기 위해 법의 기원부터 살핀다. 법이 태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한 뒤 법이 발전하게 되는 역사적 경로를 차근차근 알아 나간다. 그 과정을 살피기 위해 정의의 관 및 헌법정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 설명한다.

책은 무엇이 정의인지, 어떤 법치주의가 합당한지에 대한 정답을 열어두고 있다. 법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서 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열린 법'의 핵심이다.

〈풀빛·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지난 18년간 1만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전담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공)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 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KBC-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 초청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초빙교수

건국대 송순근 교수(법학박사) 명지대 부실채권(NPL) 문정수 교수 동강대 이왕무 지적학과 교수 김주현 세무사 前세무서장 등

특 전

자격 취득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목표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후 평생지도(전대상, 교대생 30% 할인)

○강의기간 : 3월~6월(선착순 70명가량)

강 의	부동산경매과정	부동산실전경매과정	부동산실전경매과정
일 시	매주(수) 주간반 15시~17시 야간반 19시~21시	매주(목) 주간반 15시~18시 야간반 19시~22시	매주(화) 주간반 10시~12시 야간반 19시~21시
수강료	15만원	18만원	15만원
장 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광주 교육대 평생교육원
연락처	062)530-3873~4 520-4243		

부동산강의 및 경매컨설팅 전문상담 010-5613-1808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신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